무등산 瑞峰寺의 시문 고찰

권 수 용*

〈차 례〉

Ⅰ. 머리말
Ⅱ. 서봉사의 역사·지리적 배경
Ⅲ. 서봉사 관련 작가와 그 시문
Ⅳ. 서봉사 관련 시문의 특징과 의의
Ⅴ. 맺는말

Ⅰ. 머리말

전남 담양군 남면 정곡리 절골에는 서봉사의 터가 남아 있다. 아직까지도 이곳에는 폐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석부재들이 여기저기에 뒹굴고 있다. 조선시대가 비록 숭유억불의 정책을 시행했지만, 서봉사와 같은 사찰들은 그 속에서도 계속 유지되었던 것이다. 무등산에는 그동안 수많은 절이나 암자가 세워졌다가 사라져갔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국가의 정책에 의해 사찰이 압박을 받긴 했지만, 민중 속에서는 여전히 절을 필요로 했고, 또 사찰은 그 역할을 다했음을 알 수 있다. 서봉사가 왜 폐사되었는지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빈대 때문에 폐사”되었다고 하는 말이 전하는 것

* 전남대학교 문화재협동과정 문학박사

을 보아 결국은 官이나 儒者들의 횡포에 의해 폐하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 말까지도 존재하였다는 것은 그동안 유자들과의 암묵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모든 사찰이 서봉사와 같지는 않았겠지만, 대부분의 사찰들은 서봉사와 같은 현실대응방법을 써서 존속해왔음을 추측할 때, 서봉사의 연구는 조선시대 호남지역 사찰의 존재양상을 살피는 하나의 전범이 될 수 있다.

이곳 서봉사는 다른 사찰에 비해 유달리 시문이 많이 남아 있다. 서봉사에서 읊은 시문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무등산 주변에 수많은 누정 · 원림이 세워져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고려말부터 시작해서 무수히 많은 누정이나 원림이 서봉사가 위치한 무등산 주변에 세워졌다. 여기에 드나들었던 사람들이 서봉사에도 출입하였으며, 이때 많은 시문도 남겼던 것이다. 이는 바로 서봉사가 문학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였음을 뜻한다. 개인 문집에 남아있는 서봉사 관련 시문은 100수에 육박하고 있어서, 그 시문을 통해서 사라져버린 서봉사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으며, 서봉사가 지역의 사찰로서 어떤 역할을 하였고, 어떻게 자리매김 되었는가를 살필 수 있다.

이처럼 문학사적으로 큰 위치를 점했던 서봉사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에서 1963년에 표면적인 기초조사를 하였을 뿐이다. 그 후 1969년에는 도굴범들에 의해 해체되어 반출되려던 석탑과 석종형 부도를 전남대학교 교정으로 옮겨놓은 일이 있다. 서봉사의 유물로는 이밖에도 광주 증심사로 옮겨져 있는 '석조보살입상'과 광주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서봉사지 출현의 '석조불상과 보살상 및 나한상' 6위가 더 있다.[1] 그리고 서봉사의 터에 가면 아직도 탑이나 석등의

1) 전하는 말에 의하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1774년에 무등산 원효사로 옮겼다가 한국전쟁 때 타버린 '원효대사영정'과 1964년에 절터에서 발견된

부재, 커다란 돌확, 잘 남아있는 주초석들, 거대한 목탑심초석, 석축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2] 또한 주변의 대밭 속에는 숫가마터가 많이 남아 있다. 즉 현장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간의 연구가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역사를 연구하고, 지역문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기초가 되는 공간의 연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서봉사의 연구자료로는 『창평읍지』와 『왕조실록』 및 개인문집을 활용하였다. 서봉사 관련 시문이 실려 있는 문집으로는 『제봉집』·『석천집』·『서하당유고』·『김충장공유사』·『기암집』·『수죽집』·『만덕집』·『청사집』·『금사·병암유집』·『방암유고』·『소은시고』·『삼연집』·『두타초』·『유주세적』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서봉사의 역사를 살펴보고, 각 문집에서 뽑은 서봉사 관련 시문을 통해서 유자들이 서봉사를 어떻게 바라보았으며, 서봉사는 이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며, 또한 이들 시문을 통해서 서봉사의 모습을 추정해서 서봉사의 위상을 정립해보고자 한다.

Ⅱ. 서봉사의 역사·지리적 배경

1. 서봉사의 역사적 배경

무등산 주변지역은 산수가 수려하고 골이 깊은 까닭에 절이나 암

'금동입상 2구와 소조불' 등이 더 있었다고 한다.(박선홍, 『무등산』(서울; 도서출판 다지리), 1976·2003, 364~367쪽)

2) 유물의 크기에 대해서는 전남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한 『담양군 문화유적 학술조사』(광주; 희망문화사, 1995, 131~135쪽)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중 돌확이나 목탑심초석 등은 당시 발견하지 못한 듯하다.

자, 또는 정자나 강학 공간 등이 많이 건립되었다. 그중에서 서봉사는 역사가 깊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문인들이 드나들었으며, 아직도 그 옛터에는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석부재 등이 남아 있다.

서봉사에 대한 기록이 가장 먼저 나오기는『조선왕조실록』태종 7년조에서이다. 태종 7년(1407) 12월 2일'의 기록에서는 "여러 고을의 資福寺를 名刹로 대신 지정하다."[3]라고 하면서 총남종에 속하는 창평의 서봉사 등을 자복사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세종 6년조인 '세종 6년(1424) 4월 5일'의 기록에서는 "불교의 혁파에 관해 선·교 양종으로 나누고, 36개소의 절만을 남겨두자."는 예조의 계에 의해, "전라도 창평 瑞峯寺는 원속전이 60결인데, 이번에 90결을 더 주고, 居僧은 70명"[4]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바로 1년 뒤인 '세종 7년 5월 12일'의 기록에서는 "예조에서 '교종에 소속되어 있는 창평 瑞峯寺 등은 산수 좋은 곳이 아니니 모두 다 없애자.'[5]라는 계를 올려서 그대로 시행되었다."라고 하였다.

위 왕조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서봉사는 한때 그 사세가 대단히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서봉사는 선교 양종으로 나뉘기 이전에 총남종에 속하는 사찰이었고, 불교를 혁파하기 위해 전국의 사찰을 선교 양종으로 나누고 36개만 남겨둘 때, 서봉사는 교종에 속하게 되었으며, 원속전이 150결이 되었고, 거승은 70명으로 정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정해진 선교양종 중 전남지방의 사찰로는 위 서봉사와 구례 화엄사 두 곳 뿐이었는데, 화엄사는 선종에 소속되었고, 원속전의 결수나 거승 수는 서봉사와 같았다. 그러니 현존하는 화엄사와 비교해서 그 사세를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러나 1년 뒤에 서봉사는 산수가 수려

3)『조선왕조실록』, 태종 7년(1407) 12월 2일.
4)『조선왕조실록』, 세종 6년(1424) 4월 5일.
5)『조선왕조실록』, 세종 7년(1425) 5월 12일.

한 곳이 아니라는 이유로 없애게 되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기록에도 불구하고 서봉사는 1900년 무렵까지 계속 존재했던 것 같다. 이는 국가에서 내려진 원속전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할 뿐으로, 이후부터 서봉사는 자체적으로 사찰을 유지해나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변의 많은 문인들을 포섭하여 서봉사를 왕래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은 것으로 보인다.

서봉사에 대한 기록은 지리지나 지도에서도 찾을 수 있다. 1530년에 편찬 간행된『신증동국여지승람』의「佛宇條」에 "서봉사는 무등산에 있다."[6]라는 기록이 보이고 있으며, 1815년경에 편집된 것으로 알려진『창평현읍지』의「寺刹條」에는 "서봉사는 현의 남쪽으로 30리 거리인 무등산 아래에 있었는데, 경술년(1670년)의 화재로 소실되어 중건할 때 별도로 섭청각을 동구에 지어, 시내로 인해 끊어진 골짜기를 연결했다. 제봉 고경명의 시가 있다."[7]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책의「책판조」에는 "『송강집』과『기암집』이 서봉사에 있다."는 기록이 있어서 서봉사에서는 목판을 판각하거나 책을 인출하는 일도 하였으며, 정철과 정홍명의 문집 목판이 이때까지 서봉사에 소장되어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1871년에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 일환으로 편찬한 지방지인『창평읍지』에서도 앞의 기록과 똑같이 나와 있으며, 1899년 內部에서 13도에 지시하여 만든『창평현읍지』나 1910년부터 1937년에 걸쳐 만들어진『조선환여승람』에서도 아직 서봉사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서 서봉사는 이 무렵까지 존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34년 조선호남지발행소에서 발행한『조선호남지』에는 서봉사에 대하여, "무등산의 북쪽 골에 있다. 경술년 화재로 불타서 중건하면서 별도로

6)『신증동국여지승람』권39, 창평현「佛宇條」.

7) 담양향토문화연구회,『담양문헌집』(광주; 광명문화사, 2004), 250～291쪽.

동구에 섭청각을 지어서 시내를 연결하였다. 제봉 고경명의 시가 있으며, 폐한지 오래되었다.”[8]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서봉사는 1910년 무렵에야 없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서봉사의 창건에 대해서는 “고려 때 청신한 명사인 李知命(1127～1191)이 창평 정곡리에 서봉사를 건립하고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의 광교산과 고창군 고산에도 같은 이름의 절을 지었다.”[9]는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실재로 용인의 광교산 자락에는 ‘서봉사지’가 남아 있으며, 여기에는 이지명이 지은 <현오국사탑비>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전남대 대강당 앞 잔디밭으로 옮겨져 있는 석탑은 그 조성연대를 고려시대의 양식으로 보고 있으며, 증심사로 옮겨진 석조보살입상도 고려초기 양식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서봉사의 창건 연대는 고려초기 이전으로 올려 잡을 수 있겠다.

서봉사의 폐사 시점에 대해서는 “서봉사는 정유재란 때 불에 탄 뒤 절의 규모가 상당히 줄었으나 철종3년(1852) 3월 13일에 폐사된 사찰이다.”[10]라는 설이 있다. 그러나 이 말은 무엇에 근거했는지 알 수 없으니, 이미 읍지의 기록에서 살폈듯이 더 후대까지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후에 제작된 고지도에도 서봉사가 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1857년경에 김정호에 의해 제작된 <東輿圖>나 1872년에 만들어진 <지방지도>에도 서봉사가 그려져 있다. 이밖에도 인근의 담양군 남면 연천리에는 독수정이 있는데, 여기에는 주변의 경치를 읊은 <독수정14경>이 있으며, 그 14경 중에는 <瑞峰暮鍾>이

8) 조선호남지발행소, 『조선호남지』(광주; 황화당인쇄소, 1934), 권1「연혁」 창평 사찰조.

9) 이해섭, 『담양설화』(담양향토문화연구회, 2002), 81쪽.

10)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호주변 무등산권 문화유산 기초조사 보고서』(도서출판샘물, 2000), 101쪽.

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독수정은 1891년에 재건되었고, 1915년에 기와지붕으로 개와했는데, <독수정14경>은 독수정의 재건시나 개와시에 지어졌을 것이다. 이것으로 보아 서봉사는 1900년 이후까지 존재했음이 확실하다.

이상에서 볼 때, 서봉사는 고려초기나 그 이전에 건립되어서 일제시기 이전까지 존속했던 사찰이며, 조선초기까지만 해도 규모가 매우 컸었는데, 조선후기를 지나면서 사세가 많이 약화되었다가 1910년 무렵에 폐사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서봉사의 지리적 배경

서봉사는 지리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인근 지역, 즉 광주나 곡성지역과 화순 및 순천지역을 오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었다. 또한 서봉사가 위치해 있던 담양지역은 인근에 위치한 화순지역과 함께 누정원림문화가 매우 발달해 있었는데, 그 경계지역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오가는 문인들이 자주 찾아들기도 했다. 산수가 수려한 곳에 자리했던 서봉사가 풍류를 위한 공간으로도 애용되었던 것이다.

무등산 주변에 누정이나 원림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은 선초에 고려충신 전신민이 담양군 남면 연천리 산음동에 독수정을 세웠을 때부터이며,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양산보가 담양군 남면 지석리에 소쇄원을 건립한 16세기부터이다. 그 이후로 소쇄원 주변에는 김윤제의 환벽당, 김성원의 서하당과 식영정, 송순의 면앙정, 조여심의 환학당, 김덕보의 풍암정사 등이 축조되었다. 가까운 화순의 적벽 주변에도 송정순이 외손 나무송 형제에게 준 물염정, 정지준의 망미정, 정암수의 창랑정 등이 경영되었다. 이처럼 승경처에 당대의 유명

한 사람들이 소요하는 누정원림이 들어서게 되자, 이곳에는 당연히 많은 문인들이 모여들어 교유하게 되었고, 이들은 이곳에서 시를 읊조리며 시단을 형성하여 호남의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갔다. 서봉사의 경우도 이 시기에 누정원림을 드나들던 문인들이 찾아들어 시를 남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16세기에 들어 사림들의 산수유람의 풍조가 유행하게 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누정원림이 무등산 자락에 별처럼 늘어서 있다는 사실은 밖으로도 알려져서, 외부지역에서 유람차 들르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었다. 이들은 주로 적벽의 뛰어난 승경과 함께 누정원림이 모여 있는 소쇄원 지역을 들르면서 그 중간지점인 서봉사를 경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서봉사는 유람자들의 숙소 역할도 하였던 것이다. 서봉사는 사찰 본연의 역할인 신앙처나 수행도량이 되기도 하였지만, 주변에 사는 유자들의 학문수행처도 되고, 시회 등을 여는 모임의 장소도 되었다.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는 乾淨地로서의 역할도 하였고, 더운 여름날은 피서지가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유자들은 서봉사를 원찰로서 갖기도 하는 한편, 이곳의 스님들에게 시를 주기도 하며, 문학 교유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Ⅲ. 서봉사 관련 작가와 그 시문

서봉사는 현재 사라지고 없지만, 주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문집에는 서봉사에서 읊은 시문이 많이 남아 있다. 임억령과 고경명의 시를 시작으로 해서 이곳에서 시문을 남긴 사람들은 대단히 많다. 이것을 통해 서봉사는 단지 불법을 전수하고 부처님을 공양하는 곳 이외에도 문인들의 교유처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낸 곳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서봉사를 드나들면서 시문을 남긴 사람들과 그 글을 살펴보겠다.

서봉사에서 시문을 남긴 사람으로 문집에 수록되어서 확인이 가능한 사람으로는 석천 임억령과 제봉 고경명을 시작으로 하여 서하당 김성원, 만덕 김대기, 수죽 조홍립, 기암 정홍명, 청사 고용후, 영주 양천운, 계음 조한빈, 금사 하윤구, 방암 양경지, 삼연 김창흡, 두타초 이하곤, 소은 정민하, 매헌 유성화 등이 있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승려들의 시문은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다. 서봉사에 주석했던 고승들의 명단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곳의 승려들이 시문을 남기지 않았다고 속단할 수는 없지만, 불교사에 큰 획을 긋는 고승은 거쳐 가지 않았음이 짐작된다. 또 한 가지는 임억령이나 고경명 이전의 인물들의 시문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유적이나 유물에 의하면, 고려시대부터 존재했던 사찰인 것은 분명하나 이곳에서 시문을 남긴 경우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서봉사가 문인들에게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국가의 보조가 끊어진 후인 16세기부터라고 추정한다.

서봉사에서 시문이 창작된 것은 크게 3시기로 분류해볼 수 있다. 이곳에서 처음 시문을 남기기 시작한 16세기의 인물들과 그 다음 대에 시문을 남기고 있는 17세기 인물들, 그리고 마지막 주자들인 18세기 인물들로 구분해보았다. 그 이후에는 개인문집에서 서봉사 관련 시문이 나타나지 않는다. 서봉사는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19세기 말~20세기초경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곳이 문학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함은 18세기를 끝으로 막을 내린 듯하다.

1. 16세기 출입인물과 시문

읍지에서 서봉사의 기록을 찾아보면, 대부분이 “서봉사에는 고경명

의 시가 있다."라고 쓰여 있다. 이에 따르면 고경명[11]의 시가 서봉사의 어딘가에 액자로 걸려있었던 듯하다. 고경명의 문집인 『제봉집』에는 서봉사에서 읊은 시로, <次石川韻, 書瑞峯僧修眉卷> 2수, <次季明, 在瑞峯寺寄贈韻> 3수, <瑞峯寺夜坐, 示曺汝規> 2수, <支巖東松江(時將往瑞峯, 松江辭以疾)> 1수 등 모두 8수[12]가 실려 있다. 이 중 2수는 임억령의 시를 차운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서봉사에서 시를 처음 남긴 사람은 임억령[13]과 고경명 두 사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임억령의 『석천집』에도 서봉사에서 읊은 시가 <遊瑞峯寺>[14]라는 제목으로 5수 실려 있다. 그러나 고경명이 차운했다는 시는 보이지 않는다. 임억령의 시문이 모두 모아진 것이 아니어서, 고경명은 임억령의 다른 시를 차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고경명의 시제를 통해보면, 서봉사에는 양자정[15]이나 조여규, 그리고 정철 등도 함께 드나들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당시 서봉사의 문미에 걸려있었을지도 모르는 고경명의 시 한 수이다.

---

11) 高敬命(1533～1592): 자는 而順, 호는 霽峰・苔軒, 본관은 장흥이다. 아버지는 孟英이며, 광주출신이다. 임진왜란 때 6000여명의 의병을 이끌고 금산에서 왜적과 싸우다 전사했다.

12) 『霽峯集』 권2～권3, <次石川韻, 書瑞峯僧修眉卷> 2수, <次季明, 在瑞峯寺寄贈韻> 3수, <瑞峯寺夜坐, 示曺汝規> 2수, <支巖東松江(時將往瑞峯, 松江辭以疾)> 1수.

13) 林億齡(1496～1568): 자는 大樹, 호는 石川・荷衣道人, 본관은 선산이다. 해남에서 출생하였으며, 동생이 임백령이다. 서봉사에서 5수의 시를 남겼다.

14) 『石川集』 246～247쪽, <遊瑞峯寺>

15) 梁子渟(1527～?): 자는 季明, 호는 支巖, 본관은 제주이다. 양산보의 셋째 아들로, 형 자징과 함께 소쇄원을 지켜갔다. 訓導를 지내었으며, 김인후・임억령 등 제현들에게 그 문행으로 추중을 받았다.

<瑞峯寺夜坐 示曺汝規> 서봉사에서 밤에 앉아 조여규에게 보이다.

客曰竹間雨 객은 대나무 사이에 비 내리는 소리라고 하고,
僧言氷下灘 승은 얼음 밑으로 흘러가는 개울물 소리라고 하네.
擁衾回白首 이불 속에서 흰머리만 내다보니,
雲碓夜春寒 물레방아가 밤에도 추위를 방아질하고 있네.16)

서봉사에서 밤을 보내면서 자연의 소리를 감상하고 있는 장면을 읊은 시이다. 고요하고 몹시 추운 밤, 밖에서 계속되는 물소리를 듣고서 한 사람은 대나무 숲에 비 내리는 소리라고 하고, 한 사람은 얼음 밑으로 흐르는 물소리라고 했는데, 막상 너무 추워서 고개만 내밀고 밖을 살펴보니, 시냇가에 설치해둔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있을 뿐이다. 각자의 취향대로 자연의 소리를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 재미있다. 산사의 밤 정취를 평담한 언어를 가지고 문학적으로 잘 형상화해낸 시라고 할 수 있다.

고경명은 임억령을 흠모하여 그와 많은 시간을 함께 했으며, 서하당의 김성원이나 소쇄원의 양자정과는 매우 절친한 친구관계를 유지하여서 이들과 관계된 시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기도 하다. 또한 1574년에는 당시 광주목사이던 갈천 林薰을 대동하고 무등산을 유람한 후 『유서석록』을 남겨서 기행문학의 진수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한편 그는 승려에게 주는 시도 상당히 많아서 그의 초고집인 『霽峰手稿』에는 전체 시 116수 가운데 20수 가량이 승려에게 준 시로, 『제봉집』에는 실리지 않은 것들이다.17) 이것을 볼 때 고경명은 누정원림뿐만 아니라, 사찰에도 자주 왕래하여 승려들과 교유하는 등 그 교유

16) 『霽峯集』 권2.
17) 박은숙, 『16세기 호남 한시 연구』, 「『霽峯手稿』에 대한 고찰」, (서울; 도서출판 월인, 2004), 337～342쪽.

폭이 매우 넓었음을 알 수 있다.

고경명과 거의 같은 시기이거나 아니면 더 앞서 서봉사를 왕래했을 것으로 보이는 임억령은 창평에서 뿐만 아니라, 동복 쪽에도 인연이 많은 사람이다. 그는 식영정에 거처하며 성산시단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누정원림에서 골고루 문풍을 일으킨 1세대이기도 하다. 그는 '湖南詞宗'이라고 일컬어지며, 양응정 · 박순 · 고경명 · 정철 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인물이다.[18] 그의 『석천집』에 연속해서 실려 있는 5수의 시는 각각 주제가 다른데, 첫 번째 시는 서봉사의 가을 모습을 읊었고, 두 번째 시는 서봉사의 전체적인 모습을 노래했는데, 여기에서는 주변 자연물의 빼어남과 함께 사찰의 부귀함을 함께 드러내었다. 세 번째 시는 역시 가을의 모습인데 서봉사를 둘러보고 돌아갈 때 읊은 시이며, 네 번째 시는 불전의 모습과 하산할 때의 정경을 그린 것이다. 마지막 시는 나한전에서 쉬면서 지은 작품으로, 이러한 시문은 서봉사의 흔적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고경명의 시가 절의 정취와 자신의 정서를 읊고 있음에 비해, 임억령의 시는 불당이나 주변 경치를 읊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 시기에 임억령이나 고경명 외에도 서봉사 관련 시문을 남긴 사람으로는 서하당 김성원[19]이 있다. 그 역시 성산 자락에 서하당을 경영하면서 문인들의 교유처를 만들어주고, 그 자신도 많은 문학적 교유를 하였다. 그의 시문 중에는 사찰에서 읊은 시나 승려에게 주는 시가 많이 눈에 띄는 것으로 보아 서봉사에도 친숙하게 드나들었을

18) 박은숙, 위의 책, 「석천 임억령의 생애와 작품 세계」, 234쪽.

19) 金成遠(1525～1597): 호는 棲霞堂, 본관은 光山이다. 김윤제의 문하에서 정철과 함께 공부했고, 나중에는 김인후의 문인이 되었다. 정유재란 때 어머니를 모시고 피난하던 중 갑자기 왜적을 만나 어머니가 피살되자 어머니를 따라 죽었다. 유집으로는 『棲霞堂遺稿』가 있는데, 1876년에 9세손 洪獻이 편집 · 간행하였다.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의 문집인 『서하당유고』에는 <송강이 서울로 떠나면서 서봉사에서 묵게 되었다. 다음날 담양으로 출발하면서 이별에 임하여 송강이 이별의 시를 구하므로 내가 靑扇을 바치며, 이어서 3수의 시를 주었다>[20]라는 긴 제목의 시 3수만이 실려 있다. 이 시는 서하당 김성원이 송강 정철에게 준 이별의 시이다.

한편 서봉사에는 김덕령[21]의 전설이 서려있기도 한데, 실제로 그의 시가 한 수 전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김덕령이 남긴 시는 몇 수 되지 않는데, 그중 다음과 같은 시 한 수가 서봉사의 벽에 쓰여 있었다고 한다.

<題瑞鳳寺壁上> 서봉사의 벽상에 짓다.

堂上含杯處 당 위에서 술잔을 기울이는데,
山前雨過時 산 앞에는 때마침 비가 내리네.
題名吾有意 이름을 써둔 나의 이 뜻은
他日行相思 먼 훗날 서로 기억하기 위해서라네.[22]

김덕령의 연보에 보면, 12세 때 서봉사에서 글을 읽었다고 한다. 그리고 위 시는 그의 나이 21세 때 쓴 것으로, 연보에서는 "동지의 벗들과 서봉사에 놀러가 법당의 벽에다 성명을 열서하고 또 오언절구의 시를 크게 써두었는데, 필획이 호장하고 굳세어 풍우가 이는 듯하

20) 『棲霞堂遺稿』 권상 23, <松翁作洛行, 出宿瑞峰, 翌日發向秋城, 臨別松翁求別章, 余奉靑扇, 因題三絶以贈之> 3수.

21) 金德齡(1567～1596): 자는 景樹, 본관은 광산이다. 광주 석저촌에서 태어났으며, 종조인 사촌 김윤제의 문하에서 배웠고, 뒤에 형 德弘과 함께 成渾의 문하에서 공부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형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으나, 반역을 꾀했다고 무고되어 억울하게 옥사했다.

22) 『김충장공유사』, 50쪽.

였다. 그 뒤 중국사람이 보고서 기이하게 여겨 악무목의 글씨가 어찌 여기에 있느냐고 하였다. 절이 정유의 병란에 불타버렸는데 법당만이 남아 있었다. 절에 승려들이 전하기를 신이 보호한 것이라고 하였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덕령장군의 전설은 무등산 곳곳에 남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문과 함께 전하는 것은 특이한 예이다. 위 글에서 보이듯 서봉사는 정유재란 때 법당만 남기고 불에 다 타버렸던 듯하다. 정유재란은 호남지역의 누정원림이나 사찰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었으니, 주변의 소쇄원이나 식영정, 환벽당, 면앙정 등도 이때 모두 화마에 휩쓸렸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봉사에서 처음 시문을 남긴 사람들은 대부분 누정원림에서 시단을 이끌던 1세대들로서, 호남의 문화를 선도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문학적인 흥취는 서봉사와 같은 사찰 공간에서도 풍류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들은 대개 학연이나 혈연, 또는 지연으로 맺어져 있어서 만남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시단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서봉사에 출입을 한 인물들로는 위 사람들 외에도 비록 남아있는 시문이 없지만, 정철 · 양자정 · 조여규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주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더 많이 왕래하였을 것이나 현재 그 글이 남아있지 않아 살필 수 없다. 이들의 서봉사 왕래는 다음 세대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찰은 신앙의 공간이지만, 이것과 관계없이 사찰과 누정은 모두 깊은 산과 흐르는 물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심산유곡을 수양공간으로 즐겨 선택하는 시인묵객들의 산수취향과 쉽사리 영합될 수 있어서 인간과 자연의 만남을 기본원리로 하는 한시의 양산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23]

---

23) 민병수 외, 『사찰, 누정 그리고 한시』(서울; 태학사, 2001), 8쪽.

2. 17세기 출입인물과 시문

앞의 세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들인 김대기 · 조홍립 · 고용후 · 양천운 · 하윤구 · 조한빈 등도 서봉사를 자주 왕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역시 주변의 누정원림을 왕래하며 호남의 시단을 이끌어가던 주역들이다. 이들 중 먼저 서봉사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는 김대기[24]의 시를 한 수 살펴보겠다. 김대기는 담양출신으로, 평생 과거시험을 보지 않고 야인으로 살다가면서 많은 한시 작품을 남겼다.

<瑞峰寺 訪曺克遠 · 鄭子羽> 서봉사로 조홍립과 정진명을 찾아가다.

尋眞不道山溪險 길도 없는 험한 산길을 찾아가서
古寺敲門夜已更 옛 절의 문을 두드릴 때는 이미 야심한 시각이네.
相看欲說從前事 서로 바라보고 지난 일을 얘기하고자 하는데,
苦竹寒風惹愁聲 왕대나무에 찬바람은 구슬픈 소리를 내네.[25]

작자가 서봉사를 찾을 때는 이미 밤이 되었을 때이다. 위 시를 통해서 김대기와 조홍립, 그리고 정진명 등이 한밤에 서봉사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람이 대숲에 스치는 소리가 시름겹게 들리는 고요한 산사에서 서로 밤을 새워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평이한 시어로 그려내었다. 그의 문집에는 서봉사에서 읊은 시가 3수[26] 전하는데, 그중 한 수는 서봉사에서 옛 감회에 젖어

24) 金大器(1557～1631): 자는 玉成, 호는 晩德, 본관은 광산이다. 양자정 · 정철의 제자이며, 담양에서 출생하였고, 문집으로는『晩德集』이 있으며, 그 서문을 기우만이 썼다.

25)『晩德集』권2.

26)『晩德集』권1, <與曺克遠, 期會瑞峰寺, 不至因三宿瀟灑園>, 권2<瑞峰寺, 訪曺克遠鄭子羽>, <瑞峰寺感舊, 贈丁季會(昌運)>

정창운에게 준 시이며, 한 수는 서봉사에서 조홍립과 만나기로 했는데, 오지 않음을 안타까워하며 지은 시이다.

조홍립[27]의 경우에는 당시 창평출신으로서, 서봉사를 꽤 자주 드나들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문집에는 4수의 시[28]와 <瑞峰寺淸會記>라는 짧은 글이 한 편 실려 있다. 그의 시를 통해서는 서봉사의 여러 전각 이름과 이곳에서 유자들이 어떤 생활을 하였는가를 엿볼 수 있고, 다음의 <서봉사청회기>라는 글에서는 서봉사가 여러 가지 모임을 갖는 장소도 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서봉사의 아름다운 모임에서 기록하다>

만력 48년 경신(1620년) 4월 20일 서봉사 모임에 젊은이와 어른들이 모두 다 모였는데,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단비도 내렸다. 때마침 이날을 당하여 또 거문고와 피리가 있어, 사람들의 깊숙한 회포를 활짝 열어주었으니, 족히 제일 훌륭한 모임이라도 할만하다. 모두의 성명을 기록하였으니, 역시 중국 영화연간에 있었던 난정고사라고 할만하다. 뒷날 이 기록을 열람하면 그 나름대로 느낌이 없겠는가.[29]

서봉사에서 성대한 모임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시이다. 이곳에 참석한 사람은 이름을 기록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풍악까지 연주되고 있

27) 曺弘立(1558～1640): 자는 克遠, 호는 數竹軒, 본관은 창녕이다. 光福의 아들로, 1579년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1588년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다. 나이 71세에 벼슬에서 은퇴하여 오로지 후진교육에 힘썼으며, 80세에 가선대부에 올랐다. 유고로는『數竹集』이 있다.

28)『數竹集』권1, < 龍興寺宴罷歸時示諸公, 甲戌秋, 水雲臺, 瑞峰寺洞口> <題照寒樓, 在瑞峰寺>, <題淸流堂, 在瑞峰寺>, <次梁士健, 在瑞寺寄韻>

29)『數竹集』권2, <瑞峰寺淸會記>, "萬曆四十八年, 庚申之歲, 四月之卄, 會于瑞寺, 少長咸集, 惠風甘雨, 適値是日, 且有琴笛, 令人暢幽, 足謂一勝, 編記姓名, 亦永和蘭亭之事也. 後之覽者, 其無感焉"

다. 이 모임을 왕희지의 난정고사에 비유한 것으로 보아 시회가 열렸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 대부분의 사찰들은 유자들의 놀이공간을 제공해주기도 하고, 잔칫상을 차려주기도 하면서 그 명맥을 이어갔다. 한편 조홍립의 시 가운데 <次梁士健, 在瑞寺寄韻>이란 시 뒤에는 소쇄원 양산보의 손자인 양천운[30]의 原韻이 실려 있어서 양천운도 서봉사를 애용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고용후[31]는 광주출신이지만, 그의 아버지인 고경명의 경우처럼 창평에서 활동을 많이 하였으며, 서봉사도 자주 왕래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의 문집에는 3수의 시[32]가 실려 있는데, 그 중 부자간의 끈끈한 정이 보이는 시 한 수를 살펴보겠다.

<瑞峯羅漢殿 夢先大夫> 서봉사 나한전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꿈을 꾸다.

夢中豈知夢 꿈속에서는 어찌 꿈인 것을 알랴.
顔色平生似 안색은 살아생전과 같았고,
洋洋勸學音 양양하게 학문을 권하는 음성은
覺來猶在耳 깨어나서도 오히려 귀가에 남아있네.
怵惕意多感 두렵고 조심스런 생각에 느낌도 많은데,
空山響風水 빈산엔 바람소리 물소리 뿐.[33]

---

30) 梁千運(1568～1637): 자는 士亨・士健, 호는 瀛洲・寒泉, 본관은 제주이다. 1590년에 진사가 되었으며, 청음 김상헌・청와 송이창(1561～1627, 송준길의 父) 등과 同榜으로서 서로 도의지교를 맺은 사이이고, 우계 성혼의 문인이다.

31) 高用厚(1577～1652): 자는 善行, 호는 晴沙, 본관은 장흥이다. 고경명의 아들로, 1605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남원부사와 고성군수를 역임하였다. 광주출신이고, 문집으로는『晴沙集』이 있다.

32)『晴沙集』권1, <瑞峯寺, 奉寄宋察訪福汝>, <瑞峯羅漢殿, 夢先大夫>, <瑞峯寺, 留別梁士立諸友>

33) 위의 책, 권1.

위 시는 나한전에서 아버지의 꿈을 꾸고 나서 지은 것으로, 열심히 학문을 하라는 아버지의 말이 깨어나서도 귓가에 쟁쟁하게 남아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의 아버지도 또한 서봉사를 자주 왕래해서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더욱 감회가 깊을 것이다. 위 시를 통해서 서봉사에는 '나한전'이 존재했고, '나한신앙'이 행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홍명[34]은 정철의 넷째 아들로서, 벼슬살이할 때를 제외하고는 창평에서 주로 생활하였기 때문에 서봉사에 자주 드나들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의 문집인『기암집』에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서봉사를 방문했을 때 지은 시 한 수[35]만이 실려 있다. 이 시를 통해서도 역시 서봉사는 주변에 사는 유자들의 휴식이나 모임의 장소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가하면 당시 동복 야사리(현재 화순군 이서면 야사리) 쪽에 살고 있던 하윤구[36]도 창평에 살던 조한빈[37]과 함께 서봉사에서 시를 주고받은 것이 전해온다. 하윤구의 문집인『금사·병암유집』중의「금사유고」에는 5수[38]의 시가 실려 있는데, 그 뒤에는 여기에 화운한 조

34) 鄭弘溟(1582～1650): 자는 子容, 호는 畸巖·三癡, 본관은 연일이다. 아버지는 澈이다. 김장생의 학풍을 이어 주자학 경전과 예학에 밝았다.

35)『畸庵集』권4, <與洞友, 訪瑞峯寺>

36) 河潤九(1570～1646): 자는 汝沃, 호는 錦沙, 본관은 진주이다. 화순군 이서면 야사리에서 大豹의 아들로 태어나, 15세에는 당시 동복현감이던 한강 정구의 문하에서 공부하였고, 1610년에 사마시에 택당 이식, 백주 이명한과 동방으로 합격하였다. 금사정을 경영하였다.

37) 曺漢賓(1583～1640): 자는 觀甫, 호는 溪陰, 본관은 창녕이다. 언형의 아들로 창평에서 출생하였고, 문집으로『溪陰集』을 남겼다. 수죽 조홍립이 재종숙이 되는데 그의 문인이며, 고경명과 정철의 문인이기도 하다. 교유한 문인으로는 정홍명·오윤겸·고용후·고부민·이명한·조희일 등이다.

38)『錦沙·屛巖遺集』「錦沙遺稿」31～32쪽, <瑞峰寺和曺觀夫漢賓韻 4首 丁

한빈의 시 3수[39]도 함께 실려 있다. 그런데 조한빈의 서봉사 관련시는 그의 문집인 『溪陰集』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들은 10년 만에 서봉사에서 만나 해우를 하면서 서로 시를 수창하고 있으며, 이때 두 사람의 나이는 이미 40살을 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이후에도 서봉사에서 더 만남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주고받은 시에서는 비분강개함이 들어 있다. 여기에서는 하윤구의 시 한 수만을 살피도록 하겠다.

<瑞峰寺, 和曺觀夫漢賓韻> 서봉사에서 조한빈의 시에 화운하다.

美兼王勃四 아름다움은 왕발의 초당 4걸을 겸하였고,
影對謫仙三 그 모습은 삼소계의 세 신선을 대한듯하네.
我愛溪陰子 나는 계음자를 사랑하니,
文章斗以南 문장은 남쪽에서 으뜸이라네.[40]

위 시를 통해서 하윤구와 조한빈이 대단히 친밀한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한편으로 조한빈의 생김새나 문장이 매우 뛰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시기에는 절친한 친구끼리 서봉사를 찾기도 하고, 또는 모임을 갖기도 하는 등 서봉사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7세기의 시는 대부분 사찰의 정경을 그렸다기보다는 유자들의 모임과 그 만남에 대한 회포 등을 읊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丑>, <瑞峰寺和曺觀夫韻>

39) 『錦沙・屛巖遺集』「錦沙遺稿」31～32쪽, <瑞峰寺和曺觀夫漢賓韻 4首 丁丑> 뒤에 2수 붙임, <瑞峰寺和曺觀夫韻> 뒤에 1수 붙임.

40) 『錦沙・屛巖遺集』「錦沙遺稿」31쪽.

3. 18세기 출입인물과 시문

18세기에 서봉사에서 시문을 남긴 유자들로는 양경지 · 정민하 · 유성화 등 주변에 살던 사람들과 김창흡 · 이하곤 · 조정만 등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 이때 가장 많은 시문을 남긴 사람으로는 방암 양경지[41]가 있는데, 그는 소쇄원 양산보의 후손으로서, 家園의 중흥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주변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시를 남기기도 했다. 그가 서봉사에서 남긴 시는 무려 40수[42] 가량이나 되며, 서봉사 관련 시의 창작 기간이 초년부터 만년에까지 줄곧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서봉사를 평생 왕래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시를 보면, 서봉사에 그와 함께 드나든 사람으로 조정만 · 김창흡 · 정민하 · 後老 · 梁采之 · 金顯甫 · 鄭湜 · 高仁叟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중

---

41) 梁敬之(1662～1734): 자는 仲直, 호는 方菴, 본관은 제주이다. 양산보의 5대손으로, 소쇄원에서 태어났고, 중부인 양진태에게서 수학하였다. 시문으로 이름이 났으며, 35살(1696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문집으로『方菴遺稿』가 있다.

42)『方菴遺稿』, <瑞峰寺 後老呼韻 應口而書(2月), 9쪽>, <瑞峰寺 次贈金顯甫, 108쪽>, <丁酉 上元夜 翫月 瑞峰寺, 143쪽>, <瑞峰寺 用三淵韻 寄上洛倅趙定而 2수, 151쪽>, <復用寤齋躡淸閣韻 寄上洛衙軒兼示令胤, 151쪽>, <避暑 瑞峰寺, 158쪽>, <驟雨(明日立秋), 159쪽>, <立秋, 159쪽>, <贈太極師, 160쪽>, <次胡五峰詩 寄瑞峰寺極上人 5수, 172쪽>, <壬寅正月 夢遊瑞寺, 180쪽>, <瑞峰 白蓮社 次鄭季深韻, 187쪽>, <殘夜水明樓分韻夜字韻, 187쪽>, <次季深殘字韻, 188쪽>, <次達夫水字韻, 189쪽>, <次仁叟明字韻, 189쪽>, <次君擇樓字韻, 189쪽>, <疊夜字, 190쪽>, <瑞寺 用源兒松廣寺韻 贈極師, 196쪽>, <用杜老韻 又贈極師, 197쪽>, <重到瑞寺 又用前韻 贈極師, 199쪽>, <入瑞寺, 205쪽>, <瑞寺 遇小寒食 2수, 219쪽>, <丁未四月 與曺永伯 入瑞寺(止), 261쪽>, <躡淸閣 懷舊與君擇同賦, 291쪽>, <瑞寺 寄從弟君擇, 301쪽>, <瑞寺 寄君擇, 304쪽>, <瑞寺 次君擇韻, 305쪽>, <躡淸閣 憶淵翁寤齋 次君擇韻, 306쪽>, <自瑞寺下來 留晩醒堂 次其韻, 307쪽>, <上瑞寺, 312쪽>, <壬子寒食日 余以村患 來寓於觀音殿..., 312쪽>

몇 사람은 문집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들의 시를 직접 살펴볼 수 없는 아쉬운 점이 있다.

양경지는 서봉사에서 시회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피서도 하고, 白蓮社란 모임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방암유고』를 통해 알 수 있는 백련사 모임의 인원은 양경지, 정식, 정민하, 고인수, 양채지 등 5명이었으며, 이때 이들은 殘·夜·水·明·樓자의 운을 정해놓고 각자 하나의 운을 나누어 가져서 시를 짓고 있음이 보인다. 그의 문집에 <次季深殘字韻>·<次達夫水字韻>·<次仁叟明字>·<次君擇樓字韻>·<疊夜字>란 시가 연달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양경지가 夜자운을, 정식이 殘자운, 정민하가 水자운, 고인수가 明자운, 양채지가 樓자운을 각각 사용하여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옛사람들은 이렇게 지인들끼리 모임을 결성해서 학문도 연마하고 작시능력도 기르며, 친목도 도모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한편 양경지의 시에는 깨달음에 대해 읊은 시가 있음이 특징인데, <瑞峰寺次贈金顯甫>와 <用杜老韻, 又贈極師>라는 시 등이 그 예이며, 후자의 시에서는 유교의 도와 불교의 도는 서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단지 본성을 보존함에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시를 통해서 작자가 불교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해할 수 있겠으니, 도를 궁구하는 점에 있어서는 유교나 불교나 근본은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유불회통철학을 갖고 있는 것이다. 비록 국가에서는 배불정책을 쓰고 있었지만, 호남불교가 그 와중에서도 빛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불교를 이해하는 유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이밖에도 서봉사에서 시문을 남긴 사람들로, 정민하[43]와 유성화 등

43) 鄭敏河(1671～1754): 자는 達夫, 호는 簫隱·歌隱, 본관은 연일이다. 정철의 5대손으로, 식영정을 매입하여 중수하였다. 유집으로 『簫隱詩稿』가 있다.

이 더 있다. 정민하는 정철의 후손으로 식영정을 매입하여 중수하는 등 지실마을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한 사람이다. 그의 시는 2수[44]가 남아 있는데, 한 수는 서봉사에서 김영택과 만남을 가지고 헤어지는 마당에서 쓴 작품이고, 한 수는 서봉사의 입구에 있던 섭청각에 올라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자신의 심회를 돌아보고 있는 시이다. 유성회[45]는 창평지역에서 대대로 살고 있는 유인흡의 후손으로, 그 역시 서봉사에 있는 남암에 올라서 고인수의 작품에 차운하여 지은 시가 한 수 있다.[46]

한편 서봉사는 호남지역을 유람하던 문인들이 지나가는 길에 들러서 유숙하고 갈 수 있는 역할도 하였는데, 그럼으로써 이곳에 주석하고 있던 승려들은 사찰을 찾아오는 유자들에게 시문을 부탁하기도 하고, 앞사람이 써주었던 시문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김창흡[47]의 경우 1717년에 남쪽을 유람하였는데, 이때 서봉사 등을 여행하고 「남유일기」를 남기었다. 그가 서봉사에서 남긴 것은 시 3수[48]와 산문으로, 이때 마침 조정만[49]도 능주목사를 지내고 있어서 함께 주변의 명승지

---

44) 『簫隱詩稿』 권상, <瑞鳳寺, 送別金季問(令澤)>, <瑞石歸路, 登躡淸閣, 次金昌平韻>

45) 柳聖和; 자는 師伯, 호는 梅軒, 본관은 문화이다. 그의 글이 『儒州世蹟』 중 「梅軒公遺稿」에 실려 있는데, 여기에는 시 64수가 수록되어 있다.

46) 『儒州世蹟』 「梅軒公遺稿」 130쪽, <瑞寺南庵, 次高仁叟韻>

47) 金昌翕(1653～1722): 자는 子益, 호는 三淵, 본관은 안동, 시호는 文康이다. 서울 출생이며, 金壽恒의 셋째아들로, 李端相에게 수학하고, 1673년에 진사가 되었으며, 1684년에 장악원주부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1689년 기사환국 때 아버지가 진도 유배지에서 사사되자 형 창집・창협과 함께 영평에 은거하였다.

48) 『三淵集』 권14, <躡淸閣, 次趙定而韻 2수>, <示定而>

49) 趙正萬(1656～1739): 자는 定而, 호는 寤齋, 본관은 林川, 시호는 孝貞이다. 아버지는 조경망이고, 송준길・송시열의 문인이다. 1681년에 진사시에 장

를 여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시는 모두 조정만의 시에 차운하거나 그에게 준 시인데, 조정만의 문집에는 <瑞峰寺, 次贈萬勛山人>이라는 시 1수[50]만이 보일 뿐이다. 위 시는 서봉사의 봉황문에 걸려 있는 액자에 아버지의 필적이 남아 있는 것을 보고 지은 것으로, 승려 만훈은 아버지 김수항[51]의 시[52]에도 보인다.

남쪽을 유람하고 여행기를 남긴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하곤[53]을 더 들 수 있는데, 그 역시 죽기 2년 전인 1722년에 호남지역을 유람하고 「남유록」이라는 기행문을 남겼다. 그의 문집에는 이 기행문 외에도 여행하면서 지은 시가 꽤 많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어서 조선후기 호남지방의 풍물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 여기에는 사찰이나 암자에 대한 기록이 많이 보이며, 서봉사에 들러서도 남긴 몇 수의 시[54]와 문이 들어 있다. 그의 시와 산문을 보면, 12월 5일 저녁무렵에 서봉사에 도착하여 노승인 極스님에게 시를 지어 주었고, 다음날 極스님이 신종황제어필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송강 정철이 연경에서

원으로 합격하였으며, 1715～1717에 능주목사를 역임했다. 辛壬士禍로 인해 1722～1725에는 벽동과 영변으로 유배되었다. 저서로는 『寤齋集』이 있는데, 필사본으로 규장각에 4책이 보관되어 있다.

50) 『寤齋集』 권2, <瑞峰寺, 次贈萬勛山人>

51) 金壽恒(1629～1689): 자는 久之, 호는 文谷, 본관은 안동이다. 할아버지는 尙憲이며, 노론의 영수가 되었다.

52) 『文谷集』 권4, <瑞峯寺僧, 萬勳來訪, 自言性聰徒弟, 投以一律一絶, 走次其絶句以贈>

53) 李夏坤(1677～1724): 자는 載大, 호는 澹軒・鷄林, 본관은 경주이다. 1708년 진사에 급제하였으나 벼슬에는 별로 뜻이 없어 일찍 고향 진천으로 내려가 학문과 서화에만 힘썼다. 그는 여행을 즐겼으며 불교에도 관심이 깊어 사찰과 암자를 찾아다나기도 했다. 문집에 『頭陀草』가 있다.

54) 『頭陀草』 冊十 南行集[下], <宿瑞峰寺, 贈極長老>, <夜過瑞峰寺>, <瑞峰寺, 次信甫韻>, <臨別, 次趙濟博韻, 示極師>, <出寺>

얻어 와서 절에 시주한 것이며, 또한 앞서 다녀갔던 趙濟博[55]시도 보여주어서 그 역시 이 시에 차운하여 극사에게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서봉사에 관련된 시문을 살펴보았는데, 서봉사는 꽤 오랫동안 문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존속되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창작된 시문은 대부분 사찰이라는 공간을 인식하고 그 틀 안에서 시작을 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이곳을 왕래한 대부분의 유자들은 주변에 산재한 누정원림과 같은 공간으로서 서봉사를 인식하고 있었던 듯하다. 또한 그들 중에는 불교와 유교를 근본에 있어서는 같은 것으로 보고, 수행의 도량으로 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서봉사는 앞서 살폈듯이 19세기 말까지 존속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18세기가 지나면서 이곳에서의 창작활동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주변의 누정원림의 공간에서도 문학작품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과 맥을 같이한다.[56] 문학공간으로서의 서봉사의 의미가 상실되었다는 것은 이곳에 인물들이 모여들지 않았음을 뜻하며, 결과적으로 사찰의 존재의미가 약화되어 결국 폐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본다.

Ⅳ. 서봉사 관련 시문의 특징과 의의

1. 시문을 통해 보는 서봉사의 모습

서봉사의 터는 현재 감나무농장으로 변해있다. 포크레인이 한 번

55) 趙泰萬(1672～1727): 자는 濟博, 호는 古朴齋, 본관은 양주이다. 호조참의 嘉錫의 아들이며, 권상하의 문인이다.

56) 권수용, 「소쇄원의 역사와 인문활동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08, 112～113쪽.

거쳐간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듯이 석부재들이 아무런 자리에나 뒹굴고 있다. 그 와중에도 건물 주초석이나 석축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몇 곳 있어서 절의 규모나 건물의 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살필 수 있다. 그러나 어디에 어떤 건물이 세워져 있었고, 무슨 신앙이 받들어졌으며, 어떤 역할을 했는가 등은 유자들의 시문과 유물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이 남긴 시문은 대단히 유용하다.

서봉사에 어떤 건물이 있었고, 어떤 신앙이 자리하였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임억령의 <유서봉사>란 시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데, 다음은 그 중의 한 수이다.

<遊瑞峰寺> 서봉사에서 노닐다.

少憩金銀殿 잠깐 쉬는 불전은
天台十六軀 나한 16상이 있는 곳이라네.
低頭如笑我 내려다보는 것이 마치 나를 보고 웃는 듯하나
白髮世間趨 백발은 세간으로 내닫네.[57]

임억령이 서봉사에 들러서 쉬고 있는 곳은 16나한이 모셔져 있는 전각으로, 나한상들이 자신을 내려다보며 웃고 있는 듯하지만, 이미 늙은 자신은 자꾸만 세상살이의 일에 빠져들고 있음을 담담히 표현하고 있다. 앞에서 밝혔듯이 서봉사의 유물 중에는 현재 국립광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4위의 나한상과 1위의 불상, 그리고 1위의 보살상이 있는데, 이는 모두 이 나한전에 있었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나한신앙은 통일신라 말경에 들어와서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중요한 불교신앙으로 정착되었는데, 호남지방에서는 나주 불회사나 함평

57) 『石川集』 246～247쪽.

용천사에서 고려시대 나한상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부터 이미 유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인근에 있는 광주 증심사 오백전은 500나한을 모시고 있는 곳으로, 조선초부터 현재까지 줄곧 존재하고 있는 호남의 대표적인 나한신앙 전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주 신앙이 아니라, 여러 신앙 가운데 하나로써 봉안하고 있으며, 대개 16나한을 모신 곳이 많다. 서봉사 역시 16나한을 모셨고, 광주박물관에 있는 불상과 나한상은 나한전에 있었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서봉사에 나한전이 있었음을 알게 하는 또 다른 시로는 앞에서 살핀 고용후의 <瑞峯羅漢殿, 夢先大夫>란 시가 있다.

다음에는 서봉사에 어떤 건물들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시이다.

<龍興寺宴罷歸時示諸公 甲戌秋, 水雲臺 瑞峰寺洞口> 용흥사의 잔치가 파하고 돌아갈 때 여러 사람에게 보이다. 갑술년 가을, 수운대는 서봉사의 동구에 있다.

別意琴邊苦 이별하는 뜻은 거문고에서도 씁쓸하고
離觴石上催 떠나려는 술잔은 바위 위에서 재촉하네
他年少長集 다른 해에 젊은이 어른 모두 모이자고
更約水雲臺 수운대에서 다시 약속하네.58)

<題照寒樓 在瑞峰寺> 조한루에서 짓다. 서봉사에 있다.

峽裏千年寺 골짜기 속엔 천년된 사찰이요,
溪邊十丈樓 시냇가에는 열길된 누각이로다.
空潭印明月 텅빈 못에는 밝은 달이 비추고,
倚檻正宜秋 난간에 기대니 바로 가을이로다.59)

58)『數竹集』권1.

<題淸流堂 在瑞峰寺> 청류당에서 짓다. 서봉사에 있다.

穿壑涓涓出 골짜기를 뚫고 졸졸 흘러나오고,
循除瀧瀧鳴 섬돌따라 콸콸 소리치는구나.
盈科猶未已 웅덩이를 채우고도 그치지 않고
放海尙能淸 바다로 향하여도 오히려 맑구나.[60]

위 3수의 시는 모두 조홍립의 『수죽집』에 실려 있는 작품들로, 첫 번째 시는 이별의 정감을 시로 표출한 것이고, 두 번째 시는 서봉사의 청허한 모습을 그림처럼 나타낸 것이며, 세 번째 시는 자연의 모습 가운데 물에 대한 상념을 읊은 것이다. 위 시를 통해서 서봉사의 건물이름과 건물의 위치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 나오는 '수운대'는 서봉사의 동구에 세워져 있던 건물로 나타나는데, 정곡리 마을 어귀 쯤에 시내를 연결해서 서 있었던 누각으로 보인다. 원속전이 60~150결이나 되었다면 그 일대가 모두 서봉사의 전토에 속했을 것이므로, 서봉사에서 지은 누대가 현재 폐사지에서 한참 내려온 마을 입구에 있었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조한루'는 서봉사 경내로 들어서기 전의 시냇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에도 무등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이 폐사지를 관통해서 흘러내리고 있으며, 그 시내 양안에는 석축을 쌓았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아마도 그 근처에 누각이 세워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청류당'은 서봉사 경내에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그 밑으로 작은 개울이 흘렀던 것으로 보인다. '수운대'는 조홍립과 친구였던 정홍명의 시에서도 나온다. 즉 <與洞友, 訪瑞峯寺>란 시에서는 그윽한 승경지를 찾아가자는 약속에 의해 서봉사를 방문하는데, 동구에 있는 수운대 근처에서 한 때를 보낸 모습

59) 위의 책, 권1.
60) 위의 책, 권1.

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수운대'는 후에 '섭청각'으로 변한다. 읍지에는 '섭청각'이 동구에 있다고 하며, 경술년(1670)의 화재 후에 지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즉 동구에 있던 수운대가 1670년에 불타 없어지고, 그 자리에 다시 '섭청각'을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조홍립보다 후세대인 양경지의 시에 다음과 같이 섭청각이 등장하고 있다.

<躡淸閣, 憶淵翁寤齋, 次君擇韻> 섭청각에서 삼연과 오재를 그리며 군택의 운에 차운하다.

憶曾聯袂叩雲關　일찍이 나란히 산문을 두드리던 일 기억하니,
倚檻吟詩共一團　난간에 기대어 함께 시도 읊조렸었지.
寤老紈蘭淵叟沒　그동안 오재는 환란에 있고 삼연은 죽고 없어,
聽鶯之處獨來看　꾀꼬리소리 들리는 곳을 홀로 와서 본다네.[61]

위 시는 양경지가 삼연 김창흡이나 오재 조정만과 함께 서봉사에 왔었던 추억을 떠올리며 지은 것으로, 섭청각은 옛 추억을 떠올리는 매개체가 되었다. 시어에 특별한 기교가 보이지 않고 평범한 언어로써 지난날의 회상을 읊고 있음이 보인다. 김창흡이 1717년 남쪽을 여행 왔을 때, 마침 조정만도 능주목사를 지내고 있어서 함께 서봉사 주변의 명승지를 여행했었다. 그러나 지금 김창흡은 저세상으로 떠난 상태이고, 조정만도 압록강변에 있는 벽동으로 귀양 가있는 쓸쓸한 상황이다. 곧 이 시는 1722년과 1725년 사이에 지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서봉사는 이 지역의 명소가 되어서 외지에서 온 유람객들도 이곳에 들러서 하룻밤 묵어가는 경우가 있었음을 앞에서 밝혔었다.

61) 『방암유고』 306쪽.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김창흡과 이하곤을 들 수 있는데, 1717년에 이곳을 유람했던 김창흡의 눈에는 서봉사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었는지 그의 글을 보도록 하겠다.

> 22일 맑음. 서봉사를 방문하였다. 그것은 서석산에 북면해 있다. 마침 능주목사인 조정만도 와서 함께 노닐었다. 여러 친구 10여인이 또 모였는데, 오후에는 '綾鳧'가 유명하다는 소리를 듣고 여러 친구들과 함께 지수각을 나왔다. 서로 다투며 누각의 난간에 기대어 흥에 겨워하다가 이윽고 그쳤다. 기쁘게 술잔을 잡고 각각 칠언율시를 짓고 파했다.62)

위 글을 통해 서봉사에는 '지수각'이라는 누각이 있었으며, 삼연 김창흡이 오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시를 수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三淵集』에는 서봉사에서 읊은 시가 보이지 않는다.

다음에도 역시 서봉사에 유람을 왔다가 일기를 남긴 이하곤의 글이다.

> 걸음을 재촉하여 서봉사에 이르러서는 태극 스님의 방에서 묵었다. 6일. 극공이 신종황제의 御筆을 보여주었다. 검붉은 옷칠을 한 管에 금박으로 꽃모양을 만든 것이 매우 공교하였다. 송강 정철이 이것을 연경에서 얻어서 이 절에 시주한 것인데, 지금까지 소장하여서 세상이 바뀌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비록 하나의 대롱에 불과한 것이지만, 오히려 혼란한 가운데 治世를 사모하는 생각을 붙일만하니 어찌 감개하지 않겠는가. 또 조제박의 시를 보여주었는데, 제박은 전년에 이 절에 이르러 며칠간을 노닐다 갔다고 한다. 동서에는 두 봉우리가 있는데, 그 빼어난 형세로 절의 누각을 끼고 서 있다. 맑은 계류가 그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데, 스님들의 거처는 물로 나뉘어져 있으며, 매우 그윽하다.

---

62)『三淵集拾遺』 권28,「南遊日記」, "二十二日, 晴. 訪瑞峰寺, 卽瑞石山北面, 將邀綾牧趙定而同遊也. 諸友十餘人, 亦團集. 午後, 聞綾鳧有先聲, 與諸友, 出止水閣, 爭倚赤欄以遣興, 俄定而至, 欣然把酒, 各賦七律而罷"

신보가 이르길, “여름날에 일찍이 한 번 지나갔는데 몇 리에 걸쳐서 녹음이 우거져 매우 아름다웠는데, 지금 와서 보니 옛 경관을 볼 수 없다.”고 했다. 대개 시절의 꽃과 아름다운 새는 산수와 더불어 본래 상관하지 않지만 산수의 신묘한 정기의 시운은 반드시 시절의 꽃과 아름다운 새에 바탕한 후에야 바야흐로 영험하게 되는 것이다. 고인이 이르길, “겨울 산은 睡와 같다.”고 하였는데, 이 ‘如睡’ 두 자는 묘한 풀이라고 이를 만하다. 서석산사는 8·9리에 불과하였다. 신보가 이르길, “산에는 기이한 경관이 셋이 있으니, 서석과 규봉, 그리고 지공너덜이 그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삼연은 일찍이 남쪽의 산수를 평하여서 적벽·화엄굴에다가 권점을 찍었으니, 화엄굴도 또한 산중에 있다고 한다. 눈이 깊어서 가볼 수 없는 것을 꺼려하니, 마치 王冕(1287～1359)으로 하여금 신령함이 있게 하여 몰래 웃을 수 없을 것인가. 식사를 끝내고 극공과 헤어진 후 섭청각에 잠깐 앉았다가 또 반리 쯤 갔다.[63]

위 글은 이하곤이 1722년 10월 13일부터 시작해서 같은 해 12월 18일까지 남쪽지방을 순례하고 남긴 「南遊錄」에 쓰여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의 여행노정은 ‘동복－적벽－물염정－서봉사－소쇄원－환벽당－식영정－창평현’의 순서이다. 이 글을 통해서 서봉사의 동서 양

63) 『頭陀草』 책18, 「南遊錄」 2, “促行至瑞峰寺, 宿太極上人房. 六日, 極公, 示神宗皇帝所御筆, 髹管滲金爲花樣製, 甚巧, 松江相國, 盖得之燕都, 歸施寺中, 至今藏弆, 而桑海換易之餘, 雖一管之微, 猶可以寓匪風下泉之思, 寧不慨哉! 又示趙泰萬濟博詩, 濟博前年至寺, 盤桓數日而去云. 東西有二峰, 勢秀拔挾寺樓, 淸溪橫貫其中, 僧舍分水而居, 極幽絶. 信甫云, ‘夏月嘗一過, 數里行綠陰中大佳, 今來非復舊觀也’ 盖時花佳鳥, 與山水本不相關, 而山水之神情氣韵, 必資時花佳鳥而後, 方靈活. 古人云, ‘冬山如睡’, ‘如睡’ 二字, 可謂妙解也. 瑞石山寺, 不過八九里, 信甫曰, ‘山有奇觀三, 瑞石·圭峰·指空礫, 是也’ 三淵嘗評南方山水, 獨於赤壁·華嚴窟加圈點, 華嚴窟, 亦在山中, 憚於雪深, 不果往, 若使王冕有靈, 能不竊笑矣乎? 飯罷別極公, 至躡淸閣少坐, 又半里許”

쪽에는 봉우리가 하나씩 서있으며, 그 사이에 누각이 있고, 두 봉우리 사이에는 계류가 흘러내리고 있으며, 僧舍는 이 계류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서봉사는 상당히 규모가 큰 절로서 일제시대 이전까지 존속했으며, 부속 건물로 수운대·섭청각·백련암·나한전·조한루·청류당·지수각·남암·관음전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수운대는 서봉사 동구에 있던 것으로, 『수죽집』과 『기암집』, 그리고 『연일정씨소은공파보』에 기록되어 있다. 『연일정씨소은공파보』에는 정철의 첩인 유씨(지명의 母)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정홍명의 서모 유씨가 있으니, 서자인 지명의 어머니로서 문장과 글씨가 뛰어나 서봉사의 '水雲臺' 글씨를 썼다."[64]라고 기록되어 있다. 섭청각도 마을 입구에 세워진 것으로, 『방암유고』와 『소은시고』, 그리고 『두타초』 및 읍지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수운대가 불에 탄 뒤에 바로 그 자리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백련암은 『제주양씨족보』에 보이는데, 양산보의 후손인 "會英(1750~1823)의 묘가 서봉사 백련암 후록에 있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으로 볼 때 백련암은 서봉사에 딸린 암자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한전은 『석천집』과 『청사집』에 보이며, 조한루와 청류당은 『수죽집』에 나타나고, 지수각은 『삼연집』에 보이며, 남암은 『유주세적』에, 그리고 관음전은 『방암유고』에 보인다. 대체적인 사찰의 포치법에 의해 볼 때, 수운대나 섭청각은 서봉사 경내에 들어서기 한참 전인 마을 어귀에 세워져서 다리 역할을 하였었고, 조한루는 경내에 들어서기 바로 전에, 무등산에서 흘러내리고 있는 계류가에 세워졌으며, 청류당이나 나한전 및 관음전은 서봉사 본전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있었을 것이고, 백련암이나 남암 등은 서봉사 경내를 벗어나 좀 멀찍한 곳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64) 『연일정씨소은공파보』 36·40쪽.

2. 儒佛의 합의와 문학공간으로서의 서봉사

서봉사에 많은 유자들이 왕래하였고, 또 그들이 지은 시문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조선시대 지방에 처한 불교사찰의 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대개의 큰 사찰에는 樓나 閣이 있었고, 여기에는 많은 유자들이 시문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들은 불교를 배척하고 승려들을 폄하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승려들과 시적 교유를 갖는 사람도 종종 있었고, 사찰의 중수문이나 기문을 써준 사람도 많이 있었다. 겉으로는 비록 억불숭유를 내세우지만, 집안의 내자들은 불교를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배척만 하는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이 숭상했던 성리학은 심성론을 강조하였고, 그 심성이 자연을 닮은 것을 道로 보았기 때문에 자연과 가까이 있는 사찰이나 원림을 자주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서 조선시대 유자들은 불교사찰과 암묵적으로 합의를 맺고 지낼 수밖에 없었다. 유자들의 입장에서는 심성을 수양하고 학문을 하는 곳으로, 조용하고 숙식이 가능한 서봉사와 같은 곳이 필요하였고, 사찰의 입장에서는 유자들을 신도로 맞이함으로써 다른 횡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 사찰을 유지해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유자들은 큰 모임을 사찰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찰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거의 대부분 산수가 좋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연과 가까이하기를 좋아하는 유자들이 즐겨 찾게 되었고, 사찰에서는 이들에게 장소와 숙식까지 제공해주기도 하였던 것이다.

서봉사에는 당시 인근에 살고 있던 창평이나 동복현의 사람들이 주로 드나들었다. 그들은 장기간 사찰에서 묵으며 공부를 하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며 하룻밤 정도를 묵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 외지에서 유람차 다녀가는 사람들도 이곳에 들러 숙식을 해결하고 이 지역의 인사들과 시적 교유를 갖기도 하였다. 이때 사찰 내에 지어진 누각은 대개 산수를 유람하거나 시회를 여는 유자들을 위한 장소로 지어진 것 같다. 서봉사의 주요역할은 유자들을 위한 교유공간을 제공했던 일을 들 수 있겠다.

이처럼 서봉사는 주변의 누정원림과 함께 문인들의 교유공간이 되어서 문학을 생성하는 곳이 되었다. 주변에는 이미 이름난 누정원림으로, 소쇄원 · 식영정 · 환벽당 · 면앙정 · 물염정 등이 자리하고 있었고, 또 그 사이에 근처에 있는 반석리 반석천가에는 정휴가 세운 독송와[65]도 한동안 세워져 있었다. 서봉사의 시문 창작자들이 모두 이러한 누정원림에 왕래하며 시문을 남긴 사람들이다. 누정원림을 중심으로 한 호남의 시단이 융성할 때, 그 여파가 서봉사까지 미쳐서 이곳도 문학공간으로써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것이다.

서봉사는 이처럼 유자들과의 밀착된 관계에 의해 사찰을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18세기 후반부터 이 지역의 인재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됨에 따라 결국 서봉사의 사세도 사향길에 접어들게 되었다. 인물들이 사라지니, 누정원림에 왕래하는 사람들도 없어지고, 그러다보니 누정원림과 그 생명력을 함께했던 서봉사도 점차 폐색이 짙어지다가 결국 회생을 못하고 폐사하게 된 것이다.

---

65) 鄭休의 호는 松窩, 본관은 경주이다. 소쇄원 곁에 '三友堂'을 짓고 살았던 鄭鳴濩의 손자로, 담양군 남면 반석리에 입향하여, 그 반석천가에 '獨松窩'를 짓고 주변의 많은 문인들과 시주를 즐겼다. 반석천은 서봉사에서 흘러내린 물이 독수정 앞을 지나 반석마을 앞을 지날 때 이르는 이름으로, 이곳에는 넓은 바위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앉을 수가 있다고 각종 읍지류에 기록이 되어 있다.

Ⅴ. 맺는말

그동안 우리들은 지역연구를 너무 등한시해왔다. 역사·문화 등에 대한 연구가 중앙중심으로 되다보니, 인물이나 문화적 가치 등도 중앙중심으로 해석되고 연구되어 왔다. 때문에 중앙에서 비껴난 사람들, 관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자연히 연구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들이 공유했던 그 지역의 문화나 문화공간 또한 제대로 그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앙과의 비교를 통해서 지역의 인물이나 문화를 평가할 필요는 없다. 즉 지역에서의 역할이나 위상이 어떠했는가에 따라 인물이나 문화재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역사람들이 가꾸어가고 향유해간 문화공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확대·심화된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서봉사의 경우도 오랜 세월을 존속하면서 이 지역에 대단히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그러나 제대로 발굴 한 번도 못하고 잊혀져 가고 있다. 천년이 넘게 존재하는 동안 이곳에서 얽힌 이야기나 생산된 문학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실재현장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좀 더 세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영영 역사에서 사라져버리는 우환은 면하리라고 본다. 이곳에 드나든 사람은 주로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으므로 서봉사는 이곳 사람들의 정신적 고향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서봉사를 수양의 공간으로도 생각하고, 피로를 푸는 장소로도 활용하였으며, 승경을 감상하고 시문을 읊조리는 장소로써, 또는 학문을 연마하고 시회를 여는 공간으로써 이용해왔다.

이러한 서봉사는 현재 문화재로 지정조차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 그곳에 있었던 석탑이나 불상 또는 부도 등은 다른 곳으로 이동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서봉사에는 많은 유물의 잔재가 뒹굴고 있으며, 건물지나 석축, 또는 자연석 계단 등이 원형대로 많이 남아있어서 실재현장의 박물관으로서 그 교육적 효과도 높일 수 있다.

앞서 여러 사람의 시문을 통해서 절의 규모와 정황을 추측해보았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문화재지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장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어서 이 지역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그 빛을 발하도록 해야 하겠다. 그동안 많은 인물들이 모여들어 문학을 창작하였으며, 학문을 하거나 풍류를 즐기기도 했던 곳이 이제는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경명, 『제봉집』, 한국문집총간 42,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617.
고용후, 『청사집』, 장성군: 도선사, 1978.
김창흡, 『삼연집』, 표점영인 한국문집총간, 서울: 경인문화사, v.165,166,167.
김충장공유사편찬회, 『국역김충장공유사』, 광주: 전남일보출판국, 1969.
양경지, 『방암유고』, 전라남도: 한국고문서연구회, 1987.
연일정씨, 『연일정씨소은공파보』
유인흡 등, 『유주세적』, 전라남도: 한국고문연구회, 1987.
이하곤, 『두타초』, 표점영인 한국문집총간, 서울: 경인문화사, v.191.
임억령, 『석천집』, 서울: 여강출판사, 1989.
정민하, 『소은시고』, 담양: 계당, 1968.
정홍명, 『기암집』, 담양, 1684.
제주양씨, 『제주양씨족보』, 1888.
조한빈, 『계음집』
조홍립, 『국역수죽집』, 담양: 담양문화원, 2000.
하윤구 · 하영청, 『금사 · 병암유집』, 서울: 경인문화사, 1977.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호 주변 무등산권 문화유산 기초조사 보고서』, 광주: 도서출판 샘물, 2000.
권수용, 「소쇄원의 역사와 인문 활동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08.
담양향토문화연구회, 『담양문헌집』, 광주: 광명문화사, 2004.
민병수 외, 『사찰, 누정 그리고 한시』, 서울: 태학사, 2001.
박선홍, 『무등산』, 서울: 도서출판 다지리, 1976 · 2003.
박은숙, 『16세기 호남 한시 연구』, 서울: 도서출판 월인, 2004.
이해섭, 『담양설화』, 담양향토문화연구회, 2002.
전남대학교 박물관, 『담양군 문화유적 학술조사』, 광주: 희망문화사, 1995.
조선호남지발행소, 『조선호남지』, 광주: 황화당인쇄소, 1934.